
도계유통 준비는 다 되었나?

4월 1일부터 서울시 전지역 도계유통 실시에 따른 여론을 듣는다

서울시는 농수산부고시 제 3006호(78. 8. 5)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 17조 규정(월간 양계 78년도 7.8.9월호 참조) 1일부터 서울특별시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위생적인 닭고기 처리공급과 닭고기의 유통체계 개선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정비 및 환경위생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해 2월 1일부터 서울시 중구·종로구·아파트 지역에만 국한 실시, 점차지역을 확대 시킬 예정이었던 닭고기 도계유통이 제한 실시 14개월만에 서울시 전지역으로 확대되게 됨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는 비상한 관심을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번 닭고기 유통개선 방침에 따르면 도계능력은 79년 12월말 현재 서울의 일반도계장 2개소와 간이도계장 5개소에서 1일 4만수, 경기도의 9개도계장의 1일 5만 5천수, 기타 강원, 충남북의 3개소에서 1만 2천수등 모두 19개 도계장의 1일 도계처리 능력이 10만 7천수가 되고 새로이 설치, 허가되는 간이도계장에서 5만수 정도를 도계해 도합 1일 15만수의 도계능력으로 서울시의 1일 닭고기 소비량 15만수에 대처할 예정이다.

또한 간이도계장 설치허가를 종전 7평이상에서 5평이상으로 축소변경하고 지역은 종전과 같이 주거지역을 제외하고 상업지역 또는 기타 가능지역으로 하는 한편 허가는 구청장에 내부위임 하기로 했다.

한편 이에관해 업계의 반응은 재래적인 생계유통에서 탈피하여 위생적인 계육을 유통시키므로 환경위생향상을 도모하고 생산물 유통체계가 조직화 됨에 따라 판매처의 다양화는 물론 정상적인 식품생산업계의 육계업발전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찬동하나, 현 시점에서 서울시 1일소비물량 비수기 15만수, 성수기 30만수로 볼때 이를 도계처리할 도계능력이 아직 절대 미흡하며 특히 기존 도계장의 지역적 분포상황으로 볼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간이도계장허가에 따른 문제로 기존 시장의 닭전이 거의 상업지역이 아닌 상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신규로 간이도계장허가를 내기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며 혹 본 도계유통에 차질이 오는 경우 많은 생산자들이 적지않은 피해를 안게되어 다시한번 제 2의 76년도 사태를 면치 못하게 되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관해 각계의 여론을 들어보면

경기도 입북양계단지 이철우 단지장은 「현

재 서울시민이 소비하는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능력이 절대부족한 시점에서 도계장설치에 대지선정, 건축법 제한등의 여건의 완화로 많은 사람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특혜 조치를 취해 생산된 물량이 원활히 소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한편 충분히 연구 검토된 후 실시 될 것을 요망한다. 또 이 시점에 생산단지별로 기금을 조성해 생산자측면에서 도계장을 설립 생산자 스스로가 스스로의 권익을 보장 받아야 하며 서울·경기지역의 각단지 도계장은 대한양계협회와 긴밀한 연락을 취해 생산에서 유통문제까지 계열화하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당국은 많은 소매상이 도계품 판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판매장시설의 간소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 절 우〉



〈백 명 기〉

더불어 서울시 행정당국이 서울시민에 위생적인 닭고기를 먹이기 위한 유통·소비행정에 노력하는 만큼 경기도 행정 당국에서는 경기도내 많은 생산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생산·판매에 노력을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여하간 육계업자들이 항상 숙제로 안고있는 도계법시행이 행정당국과 생산자, 상인, 소비자가 다같이 상호협동 합심하여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려 생산자는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지없다.」고 하였으며

김포지역 해원농장의 백명기씨는 현재 도계장이 지역별로 안배되어 있지 못하고 더군다나 도계처리능력이 전혀 소비물량에 미치지 못해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당국에서는 단위 농협이나 축산진흥회를 통해 육계생산단지별로 도계장을 설치하여 운영할때까지 재고가 절실히 요청된다. 이 시점에서 빠른시간내 도계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도계법시행은 난항을 거듭할 것이다.

간이도계장 시설규제완화와 간이도계장에 서도 위탁도계를 허가해 물량체화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당국에서는 신경을 써 주기 바란다. 또한 소비자에 대한 도계품유통의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소비위축이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대한양계협회 인천분회 회장 이태규씨는 서울시민의 1일 계육소비량(성수기, 비수기)을 충분히 도계처리 할 능력이 있을때면 언제라도 도계유통실시를 찬성하나 서울시당국의 금번 도계장 및 간이도계장의 처리능력 집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인천, 수원 근교의 도계장은 인천·수원도시의 소비용도 제작업에 충당하기에도 능력의 제한이 있는데 그곳에서 도계해 서울지역에 소비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인천·수원 등 도시에서 도계법시행이 가능했던것은 대량소비처인 서울이 근처에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제 이 무리한 통제에 의한 물



〈이 태 근〉



〈이 태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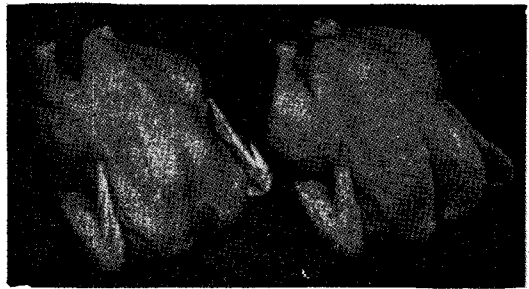
량체화를 생각할 때 생산자로서 염려가 앞선다. 도계처리능력 문제는 도계장 허가를 지역에 따라 주문에 맞게 시설조건을 완화해주었으면 한다.

일산지역에서 육계업을 하고있는 이태근씨는 일반도계장의 도계능력이 너무도 빈약하기에 현재법상 위탁판매업자가 간이도계장에서 위탁도계를 못한다면, 절대 도계품유통은 성공할수 없다. 한 여름 찌는듯한 더위 속에 계류장에 1천수를 넣고 현재 소규모 일반도계장에서 자기 도계순서를 기다린다면 1~2시간이면 그 닭들이 더위에 모두 폐사 할 것이다. 절대 부족한 일반 도계시설이 무척 염려스럽다. 행여 도계법 시행에 어떠한 차질이 오는 경우 행정당국이나 닭 유통상인이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기 보다는 애써서 닭을 키워는 생산자만 피해를 안게되기 때문에 더욱이 걱정스럽다. 이번 서울지역 법시행이 생산자의 고통을 잘 파악해서 실시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지 없다.

솔직한 심정은 일반도계장 도계능력이 어느 정도 소비량을 카바할 때 까지는 유도되었으면 한다.」

본회 안양분회 오강록씨는 지금의 상황은 과거 76년보다 심각하리만큼 어려운 실정이다. 사료값·병아리값·약값인상, 인건비상승등 과거에는 상상도 못 할만큼 올랐다. 서울시에 도계법이 전면 실시될 경우 여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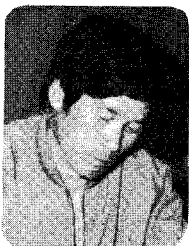
차질이 오면 유통상인은 절대로 죽지않는다. 망하는 것은 영세한 생산자들이다. 시당국자들은 생산자적 측면에서 일처리, 법집행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 뿐이다.



생산자가 조사한 바로는 서울 지역의 현 일반도계장 1 일처리능력이 2만5천~3만수 정도인데 10만수 처리능력이라하니 너무도 현실과의 괴리를 느낀다. 현처리능력을 분명히 알고 혼란이 오지 않도록 부분적인 확대실시가 됐으면 한다.

차제에 생산자가 도계장을 생산지별도 설치토록 하는것이 시급한 문제이나 재력있는 사람치고 육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는 영세업인 고로 당국의 융자지원, 시설기준완화 제한구역완화로 재정적·행정적 특별 지원으로 생산자 주도의 도계장설치에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

육계업을 하는 조성남 씨는 앞으로 육계의 등급과 품질문제가 도계유통시 심각히 대두될 것이다. 또 가격면에서 대체육인 돼지고기와의 경쟁에서 앞서기위해 저렴한가격으로 양질의 계육생산을 해야 할 것이고 생산자가 유통까지 참여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그 조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당국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도계품에 대한 인식을 큰 저항감없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육계업자와 도계장측이 협력하여, 도계법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오 강 록)



(조 성 남)